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레슨]

- PR 브리핑 -

1. 개요

- 공연 일시: 2012. 07. 24(화) ~ 2012. 09. 02(일)
- 공연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언론 이슈: 국민배우 고두심 연기 데뷔 40주년 기념 연극, 연습실공개, 프레스콜, 배우 인터뷰
- 보도 자료 릴리즈: **총 5회**
(캐스팅 공지, 연습실 공개, 힐링캠프 방송 후속, 프레스콜, 공연개막)
- 보도 횟수: 총 583건
(지면 기사: 일간지_경제·무가지 포함 29건 | 방송 보도 13건 | 온라인 기사 535건)

2. 주요이슈

- 고두심 배우 40주년 기념 연극, 5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에 선 고두심
- 6가지 댄스를 선보이는 무대, 그 중심에 선 배우 고두심
- 까칠한 게이 역으로 다시 태어난 배우 지현준
- 공연 개막 및 원작자와의 만남, 연극공연으로는 이례적인 VIP 리셉션 진행
- 관객과의 만남, 연출과의 대화

3. PR Case 분석

1) 연습실 공개

- 일시: 2012. 6. 26(화)
- 장소: 충무아트홀 연습실
- 구성: 하이라이트 시연, 포토타임, 간담회 (제작사 CJ E&M, 김달중 연출, 고두심, 지현준)
- 특징: 국민배우 고두심의 연기 데뷔 40주년 기념 연극
5년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한 고두심,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6가지 댄스 최초 공개
연극 무대 복귀에 대한 문화계/엔터테인먼트 기자단의 고른 관심
- 참석 : 일간지 7개 매체 | 주·월간지 4개 매체 | 방송 7개 매체 | 온라인 27개 매체
[지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노컷뉴스, 석간시티 外
[방송] MBC 보도국, KBS 보도국, Y-STAR, OBS, JTBC 보도국, 채널A 보도국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유니온프레스
[전문지] 플레이DB
[온라인] 쿠키뉴스, 뉴스엔, 동아닷컴, 뉴스투데이, 머니투데이, OSEN, MK스포츠 外

2) 프레스콜

- 일시: 2012. 7. 23(월)
- 장소: 충무아트홀 연강홀
- 구성: 하이라이트 시연, 포토타임, 간담회
(제작사 CJ E&M, 리차드 알피에리, 김달중 연출, 고두심, 지현준)
- 특징: 원작자 참석에 따른 취재 기자들의 높은 관심
포토 기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
- 참석 : 일간지 9개 매체 | 주·월간지 7개 매체 | 방송 9개 매체 | 온라인 42개 매체
[지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투데이 外
[방송] MBC 보도국, KBS 보도국, SBS 보도국, YTN 보도국, MBN 보도국
OBS, Enews, TV조선 보도국
[통신사] 연합뉴스, 유니온프레스
[전문지] 더뮤지컬, 플레이DB
[온라인] 쿠키뉴스, 뉴스엔, 아이뉴스24, 동아닷컴, 뉴스투데이, 머니투데이, OSEN 外

4. 주요기사

[지면]

>> 국민일보 (06. 01일자)

국민일보

2012년 06월 01일 금요일 018면 문화

고두심, 연기인생 40년만에 '춤바람'

연극 '댄스레슨' 위해 열공 중

"요즘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엄마'로 불렸는데, 이제 '여자'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어요."

'국민배우' 고두심(61)이 춤바람이 났다. 그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째뵈이 스텝을 밟기 시작해 올해 초부터는 본격적인 레슨까지 받고 있다. 탕고, 차차차, 스윙, 슬로우 폭스, 비엔나 왈츠에 컨템포러리 댄스까지. 화려한 여성경제인으로 거친 현장 인부들을 휘어잡을 때도 딸에게만은 다정한 엄마(SBS TV 드라마 '내일이 오면')였던 그녀. 예순이 넘는 나이에 춤을 통해 '엄마'를 넘어 '여자'로 거듭나겠다고 나섰다.

7월 24일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 가면 춤추는 고두심을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한 중년 여인이 방문교습 댄스 강사로부터 6주 동안 6가지 댄스를 배우면서 춤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희망을 찾겠다는 내용의 연극 '댄스레슨' 여주인공으로 이날 무대에 오른다. 2007년 '친정엄마' 이후 5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서는 것으로, 연기인생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고두심이 선택한 것이다.

'댄스레슨'은 200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초연 이후 2003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랐으며, 지금까지 12개국 언어로 번역돼 20개국 50개 이상의 프로덕션에서 공연됐다. 음악과 춤, 코미디가 공존하는 이 작품은 나이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깊이 있는 매력적인 코미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두심은 지난해 배역이 결정된 뒤 "어려서 고전무용을 좀 했다. 예전부터 춤을 꼭 배워보고 싶었다"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2시간이나 되는 공연을 이끌어 가면서 춤을 여섯 가지나 보여줘야 하니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을 터. 고두심은 올해 초 '부담된다'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할 만큼 힘들어했다.

하지만 고두심이 누구인가. 드라마 '전원일기' '꽃보다 아름다워', 영화 '인어공주' '엄마'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이 시대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가 아니던가. 그는 지난 23일 포스터 촬영장에서 "무대에서 만날 날이

설레고 기대된다. 부끄럽지 않은 무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고두심의 춤 지도를 맡고 있는 안무가 남미경(강남대 겸임교수)씨는 "센스 있고, 유연하고, 열정적이어서 진도가 빠르다"며 "순간반응이 빨라 몸의 에드리브가 좋고 춤추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역시 타고난 예인(藝人)"이라고 칭찬했다. 고두심의 상대역인 댄스 강사를 맡은 배우 지현준(34)도 "정말 춤추는 모습이 소녀 같이 귀여우시다"며 "인간적으로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나 좋다. 멋

라고 말했다.

연출은 뮤지컬 '헤드워' '쓰릴 미'와 영화 '페이스 메이커' 등에서 인물의 심리를 매우 치밀하고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은 김달중 감독이 맡았다. 연극은 9월 2일까지 이어진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ib.co.kr

탱고·차차차·스윙·비엔나 왈츠에서
컨템포러리 댄스까지 6가지 춤 배워
내달 24일 5년만에 연극무대 나들이

진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고두심은 "열심히 멋지게 해내서 공연을 보신 분들이 고두심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며 춤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연극 제작을 맡고

있는 CJ E&M 마케팅 팀 김부경씨는 "그동안 최루성 내용이 주를 이었던 기존의 모녀극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이른바 '여자 힐링 프로젝트'답게 관객들의 가슴을 울릴 것"이



스포츠조선

커튼콜 기대하며... '춤추는 고두심'
데뷔 40주년 연극 '댄스레슨'...6가지 춤 선보여

'국민배우' 고두심이 연극무대에서 춤을 춘다! 배우 고두심이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연극 '댄스레슨'(연출 김달중)에 출연한다. 오는 7월 24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개막하는 연극 '댄스레슨'은 아내로,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한 중년 여인이 댄스강사로부터 6주 동안 6가지 댄스를 배우면서 춤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희망을 찾는다는 이야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춤추는 고두심'의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 LA에서 초연된 '댄스레슨'은 2003년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으며, 지금까지 12개 언어로 번역돼 20개국, 50개 이상의 프로덕션에서 공연된 화제작이다. 음악과 춤, 코미디가 공존하는 이 작품은 나이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약자



◇연극 '댄스레슨'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 배우 고두심. 왼쪽은 상대역 지현준. 사진제공=CJ E&M

2012년 06월 04일 월요일 013면 문화

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깊이'가 있는 매력적인 코미디'라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고두심이 연극을 통해 선보일 춤은 스윙과 탱고, 비엔나왈츠, 포스트룩, 차차차, 컨템포러리 댄스 등 모두 6가지. 고두심은 완벽한 춤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바쁜 드라마 촬영 일정 속에서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댄스 연습에 매진해왔다. 특히 단독으로 모든 공연을 소화하기로 해 작품에 대한 강한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고두심은 2007년 '진정엄마(2007년)'를 통해 진정한 연기로 공연계에 '엄마'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이번 '댄스레슨'에서는 춤을 통해 여자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선다.

한편 상대역 '댄스강사'로는 배우 지현준이 낙점됐다. SBS '기적의 오디션' 방송을 통해 바이올린 연주와 열정적인 탱고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던 지현준은 최근 뮤지컬 '모비딕'에서 발군의 연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티켓 오픈 6월 12일, 제작 CJ E&M. 1588-0688 김형중 기자

Focus

2012년 06월 21일 목요일 A36면 종합



40년 '어머니상' 고두심 여자로 거듭나다

촬영동 기자와 백스테이지

- 연극 '댄스레슨'

탤런트 고두심(61)은 데뷔 이후 40년간 주로 '어머니'로 살았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배우로서 변신하고 싶어도 감독들이 몸매 바지밖에 안 입한다. 어머니 역할에 불만은 없지만 '만인의 어머니상'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항상 어깨가 무겁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자'로 거듭난다. 7월24일부터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개막하는 연극

'댄스레슨'의 주인공을 맡았다. 이 연극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한 중년 여인이 방문교습 댄스강사로부터 6주 동안 여섯 가지 댄스를 배우며 춤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희망을 찾는다는 이야기다.

고두심이 '댄스레슨'에서 선보일 춤은 스윙, 탱고, 비엔나왈츠, 포스트룩, 차차차, 컨템포러리 댄스 등 모두 여섯 가지다. 2시간여의 러닝타임을 파트너와 함께 섬 없이 춤추고 연기해야 한다. 그는 공연 리허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몸을 만들었다.

사실 고두심은 고향인 제주도에서 고등

학교 재학시절부터 무용반 활동을 하며 춤 실력을 갈고닦았다. 1990년 MBC 드라마 '춤추는 가엾고'에서 실존 인물인 춤의 명인 '이금화' 역을 맡았을 정도로 춤에 조예가 깊다.

그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산에 오르며 체력을 단련한다. 지난 몇 년간 관절이 안 좋아 고생했는데, 새로 춤을 배우며 관절이 좋아진 느낌이다. 지지하는 발에도 힘이 생겼다. 춤은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

그는 "관객이 '고두심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jobim@focus.co.kr

metro

2012년 06월 25일 월요일
042면 종합

데뷔 40년 고두심 춤바람!

연극 '댄스 레슨'서 연기 변신

중견배우 고두심이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5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오른다.

다음달 24일부터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초연할 '댄스 레슨'에서 주인공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2007년 '진정엄마'로 모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는 이번엔 아내와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오다 6주 동안 6가지 댄스를 배우며 진정한 자아와 희망을 찾는 중년 여인을 연기한다.

이번 출연을 위해 지난 해부터 스윙·탱고·비엔나 왈츠·포스트룩·차차차·컨템포러리 댄스 연습에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2001년 초연 후 2003년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으며, 지금까지 20개국에서 공연됐다.

문의: 1588-0688
/특진기자 tak0427@



매일경제

2012년 06월 27일 수요일 A35면 문화

데뷔 40년 연극 '댄스 레슨' 무대서는 고두심

“춤 바람난 할머니 됐어요”

강렬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발끝이 날렵하게 움직였다. 부드러운 선율에 맞춘 스텝. 남자의 손끝에 몸을 의지한 관능적인 탱고가 무대 위를 미끄러졌다. 댄서 못지않은 출중한 실력이다.

‘국민 엄마’ 고두심(61)이 춤바람이 났다. 데뷔 40주년을 맞아 연극 ‘댄스 레슨’ 무대에 선다. 연극 출연은 2007년 ‘친정엄마’ 이후 5년 만. 26일 두산아트센터 연습실에서 미리 본 ‘댄스 레슨’은 여섯 갈래의 춤에 인생의 회로예락을 녹여낸 작품이었다. 아내로,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온 중년 여인 릴리는 방문교수 댄스강사 마이클에게서 6주 동안 6가지 춤을 배우게 된다.

“나 게이예요.” 마이클의 선전포고에 이어, 그녀가 묵사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이란 게 밝혀지며 서로의 거짓말은 드러난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몰려사는 부자 동네의 활랑구와 미혼의 게이 춤 선생, 두 사람의 교감은 춤을 통해 이뤄진다.

‘예순 여덟 노랑난 할랑탱구’라 자신을 비하하던 쓸쓸한 노인이 상처 가득한 남자와 춤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도 빛어낸다.

고두심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고전무용을 익혔는데 오래전부터 꼭 이런 작품을 만나보고 싶었다”면서



고두심(왼쪽)이 상대역인 지현준과 26일 두산아트센터 연습실에서 연극 ‘댄스 레슨’ 댄스 장면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 CJ E&M>

“예순이란 나이는 새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봤다”고 말했다. 춤을 추는 장면이 연극의 3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이다. 그녀는 “춤을 추다 보니 활력도, 자신감도 생기더라”면서도 “나이는 속이지 못하겠더라. 벌써 다리에 무리가 오고 있다”며 웃었다. 그녀의 상대역은 34세의 지현준. 그녀는 “첫눈에 내 파트너로 딱 이더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젊은 배우와 호흡을 맞추다보니 요즘 예뻐졌다는 말도 듣는다”고 말했다.

‘국민 엄마’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도 그녀의 숙제. “역적스런 엄마 역할만 하다가, 구두를 신는 여인의 역할을 하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누구나 ‘나는 여자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모습을 되찾고 싶은 어머니들의 욕망을 잘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댄스 레슨’은 2001년 미국에서 초연된 리처드 알피에리의 작품이다. 12개 언어로 공연된 화제작으로 국내에선 초연된다. 공연은 7월 24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개막. 1588-0688 김슬기 기자

한국경제

2012년 06월 27일 수요일 A32면 문화

연극 무대 선 고두심 “몸짓으로 희망을 말해요”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레슨’을 연습 중인 배우 고두심 씨. <사진 제공= CJ E&M>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레슨’ 주연 말아

“몸빼(일 바지)만 입던 엄마가 몸빼를 벗어던지고 스윙, 탱고 등 여섯 가지 춤을 배워요. 그 용기가 가상하지 않아요.”

배우 고두심 씨(61)가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레슨’으로 돌아온다. 연극 ‘친정엄마’ 이후 5년 만이다. 이 연극은 30년 교직생활에서 퇴직한 중년여성이 간간한 성격의 댄스강사에게 댄스교습을 받으면서 자아를 찾아간다는 내용이다. 다음달 24일부터 9월2일까지 두

산아트센터 무대를 달굴 이번 공연은 고씨의 연기인생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씨는 1972년 MBC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전원일기’ ‘꽃보다 아름다워’ ‘내일이 오면’ 등에 출연했다.

26일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연습실에서 고씨는 “연기 인생 40년에 나이도 한번 꺾여 여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이번 연극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에게 이번 작품은 작지 않은 도전이었다. 스윙, 탱고, 차차차 등 6가지 춤을 익혀야 했기 때문. 그는 연

극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춤을 배웠다.

“춤은 저에게 즐거움이고 용기이고 기쁨”이라는 그는 제주여고 시절 고전무용을 익혀 도 대표로 뽑히기도 했다.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극을 선택했다”는 그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들이 용기를 내 일어서보시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엄마들도 한때는 여자였는데, 연극을 보고 여성스러움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김인선기자 indodo@hankyung.com

환갑 고두심 ‘몸빼’ 벗고 매혹의 춤바람

연극 ‘댄스 레슨’ 맹연습

스윙·탱고·폭스트롯·왈츠...

데뷔 40돌 내달 연극무대

체력 비결은 새벽 산행 덕

환갑의 배우 고두심이 춤바람이 났다. 다음 달 24일 막을 올리는 연극 ‘댄스 레슨’에서 방문교습 댄스강사에게 춤을 배우며 자아를 찾는 중년 여인을 연기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스윙·탱고·비엔나 왈츠·폭스트롯·차차차·컨템포러리 댄스 등 6가지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두산아트센터 연습실에서 만난 고두심은 “그 동안 일명 ‘몸빼’ 바지만 입고 남편과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역할만 했다. 데뷔 40주년을 맞아 용기를 내서 몸빼를 벗어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몸매가 드러나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와 상대배우인 지현준과 함께 스윙과 탱고를 선보였다. 몸에 완벽히 익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표정과 자세만큼은 열정이 넘쳤다.

-출연하게 된 계기는.

“중·고등학교 때 고전무용을 해서 리듬감은 남아 있다. 데뷔 40주년이 됐고, 한 번 꺾여 다시 새 인생을 사는 나이가 됐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다음 달 24일 개막하는 연극 ‘댄스 레슨’의 주인공 고두심(왼쪽)이 상대배우인 지현준과 탱고를 추고 있다.

[사진 CJE&M]

-연습량은 어느 정도인가. 체력에는 문제가 없나.

“지난 겨울부터 오후 시간을 내 연습하고 있다. 집에 가면 완전히 몸이 너털너털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피곤이 쌓이지만, 하룻밤이 지나면 다시 정신이 번쩍 든다. 새벽에 북한산행을 게을리 하지 않은 덕분인지 체력적으로곤 괜찮다. 무릎에 무리가 오긴 하는데 몸빼 바지를 입을 때보다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갔다. 주변

에서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해준다.”

-여섯 가지 춤을 선보인다.

“힘들어서 네 가지만 하면 안 되겠냐고 연출가에게 묻기도 했다(웃음). 장난스럽고 천진한 스윙과 정열적인 탱고가 가장 재미있다. 어려운 건 폭스트롯이다. 음악적 감각이 없으면 박자를 놓치기 쉽다. 선생님께 야단도 많이 맞았다.”

-작품의 주제가 ‘여자 힐링 프로젝트’인데, 직접 연기해보니 어떠신지.

“나도 이 작품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가 많이 된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니 ‘여자’ 고두심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그럴 것 같다. 댄스가 해보니 운동이더라, 우리 어머니들이 허리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나. 연극을 본 후 춤에 도전해보면 삶의 활력과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김효은 기자 hyooun@joongang.co.kr

‘여자 고두심’ 되찾고 싶었죠 춤 추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레슨’의 주인공 고두심(왼쪽)과 상대 역인 지현준이 댄스를 추고 있다. “지난겨울부터 오후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고두심은 “집에 가면 몸이 너털너털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피곤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 뿌듯하다”고 말했다.

CJ E&M 제공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레슨’ 고 두 심

흥겨운 탱고 음악이 흐르자 빨간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올려 목은 그녀가 춤을 춘다. 발걸음이 가볍다. 젊은 남자 배우의 어깨와 손을 잡고 탱고에 몸을 맡긴다.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는 배우 고두심(61)이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레슨’으로 5년 만에 연극무대로 돌아온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한 중년 여성이 방문교습 댄스 강사로부터 댄스를

배우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연습실에서 만난 ‘춤추는 고두심’은 지금까지의 고두심은 잊으라고 말하는 듯 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더블 캐스팅 없이 단독 출연한다. 게다가 스물일곱 살 어린 배우 지현준(34)과

고, 이런 도전이 앞으로 흔치 않을 것 같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두심은 “다리에 굉장히 무리가 오고 있다. 평소엔 새벽 산행 다니며 키운 다리 힘으로 버티고 있다”며 웃었다.

몸매 바지 입고 장바닥에서 땀구는 어머니,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역할을 주로 하다가 하이힐에 드레스를 입은 역할이다. “오랜만에 치장하러니 어렵다. 대사뿐 아니라 외적인 모습도 살려서 보여줘야 하니 말이다. 몸매 입을 때보다 아워어가 는 것 같다. 주변에서 점점 허리가 잘록해지고 있다고 놀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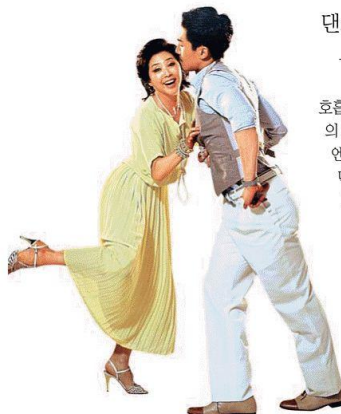
김달중 연출가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춤이 아니라 고두심 선생님이 너무 젊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극중 고두심이 맡은 릴리는 72세. 김 연출가는 “선생님이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다 연기할 때 굉장히 귀여우시다”며 미소를 지었다.

고두심은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니 ‘여자’ 고두심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그럴 것 같다. 댄스가 해보니까 운동이더라. 허리로 똑바로 펴지고 자신감을 찾게 되더라. 이 연극을 보며 어머니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한 번 불러보며 여자로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월 24일~9월 2일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평범하게 살아온 중년 여성 댄스 배우며 새로운 ‘나’ 발견

호흡을 맞추는 그는 몹시 설레 보였다. 연극의 3분의 1 이상이 춤이다. 스윙, 탱고, 비엔나왈츠, 포스트룩, 차차차, 컨템포러리 댄스 등 6가지. 모든 장의 마지막마다 각기 다른 춤을 2분 이상 춰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중·고교 6년 동안 고전 무용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나이 들어서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죠. 올해가 데뷔 40주년, 나이 들고 보니 한번 꺾여서 다시 새 인생을 사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될 것 같고, 새로운 도전도 되



“나 아직, 여자랍니다”

‘엄마’ 고두심이 ‘여자’ 고두심으로 변신했다. 7월 24일 막을 올리는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 레슨’에서 고두심은 탱고 선율에 온몸을 싣는 60대 댄스로 열연한다. 빨간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춤추는 고두심은 몸매까지 젊고 시종반경을 누비던 ‘엄마’가 아니다. 연하 남성 댄서의 마음을 흔드는 고혹적인 여인이다.

무대에서만이 아니다. 김지혜(60)씨는 플라멩코 댄서다. 춤으로 단련된 몸매와 피부 덕분에 그녀를 60대 할머니로 보는 사람은 없다. 문화센터 유명 강사이기도 한 그녀에게 춤을 배우는 학생들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90년대만 해도 30대 수강생이 가장 많았는데 요즘은 수강생의 절반이 50~60대 여성이에요. 69세 학생이 있을 정도니까요.”

60대 여성을 ‘할머니’라고 불렀다가는 뽀뽀 맛을 제대로 못 보겠다. ‘엄마도 여자’라는 말은 식상할 정도다. 60대 여성에게도 성적 매력은 있다는 건 65세의 배우 윤여정이 입증했다. 영화 ‘돈의 맛’에서 31살 차이 나는 남자배우 김강우와 파격적인 정사신을 펼쳐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윤여정은 최근 ‘저녁리포트’가 뽑은 아름다운 여배우 50'에서 임수정, 한가인, 수애를 제치고 2위에 등극했다.

60대 여성의 섹시 코드는 장간의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대세’라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다. 스타일리스트 서은영(아장드베티 대표)이사는 “보릿고개를 넘어 ‘문화’라는 걸 즐기기 시작한 세대들이 50대, 6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변화”라고 분석한다. “인생을 즐기려고 다짐한 것



세대들이죠.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은 할 만큼 했으니 여자로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겠다는 거죠. ‘나는 가수다’의 인기처럼 대중문화의 중심이 20~30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강기 열종, 헬스의 보편화로 여성의 신체 나이가 10년, 20년씩 젊어졌다는 것도 60대의 섹시코드를 가능하게 했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김희환 교수는 “운동을 통한 노력뿐 아니라 기보 영양상태, 발육상태가 과거 6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진 게 사실”이라며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건강나이 측정’ 프로그램도 아예 나이, 근육 나이,

지방도 나이 등으로 세분해 운영할 만큼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외출”한 60대 여성들의 패션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신세계백화점 홍보실 장대규 과장은 “중년 여성을 겨냥한 ‘마담 부티크’ 형태의 의류매장들이 절반 이하로 사라졌다”고 전했다. “50~60대 여성들이 엘레강스한 정장이 아니라 20대의 캐주얼한 옷, 30~40대의 컨템포러리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맘에도 받쳐줍니다. 뒤편 살짝 보인 연령을 알아맞히기 힘들 정도죠.” 서은영 이사는 “우리 어머니만 해도 ‘H&M’이나 ‘자바’에서 옷을 구매하신다. 당신 친구 중에는 마니스크트 입는 사람도 있다며 부러워하신다”면서 웃었다.

안티에이징, 성형수술의 일반화도 여성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그랜드스

행외과 서일범 원장은 “20~30대부터 일찍 감지 노화 예방을 하는 데다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시술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라 실제 나이보다 열 살 젊어 보이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섹시코드는 60대 남성들에게도 변제가는 추세다. 서울 자양동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의 헬스트레이너 김성준씨는 “60세 이상 회원 10명 중 3명은 근육질의 몸을 만들려 오시는 분들”이라면서 “퇴화하던 근육을 다시 발달시키기 위한 특별한 헬스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 시술의 주 고객도 50~60대 남성들로 확대되고 있다. 서일범 원장은 “양미간의 일차 주름을 비롯해 눈과 턱 밑에 상술보처럼 늘어난 피부 교정 시술이 가장 인기 있다”고 전했다.

김윤덕 기자 soon@chosun.com

고두심, 춤바람 났네 ~

■ 국민배우 고두심이 ‘춤바람’이 났다.

고두심은 연기 데뷔 40년을 기념해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 레슨’ (이하 ‘댄스레슨’)으로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댄스레슨’은 누군가의 아내로, 혹은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한 중년 여인이 방문교습 댄스강사로 부터 6주 동안 6가지 댄스를 배우며 춤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희망을 찾는 이야기다.

24일부터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레슨’ 스윙·탱고·차차차 등 6가지 댄스 과격 변신 예고

는다는 내용이다.

드라마 ‘전원일기’부터 ‘꽃보다 아름다워’와 영화 ‘인어공주’ ‘엄마’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엄마’가 된 고두심은 이번 공연을 통해 ‘여자 고두심’으로 거듭난다.

고두심은 무대 위에서 2시간 동안 탱고부터 스윙, 비엔나 왈츠, 폭스트롯, 차차차, 컨템포러리에 이르기까지 6가지 댄스를 펼쳐며 과격적으로 변신한다.

나이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까칠한 댄스강사는 지현준이 맡았다.

SBS ‘기적의 오디션’에서 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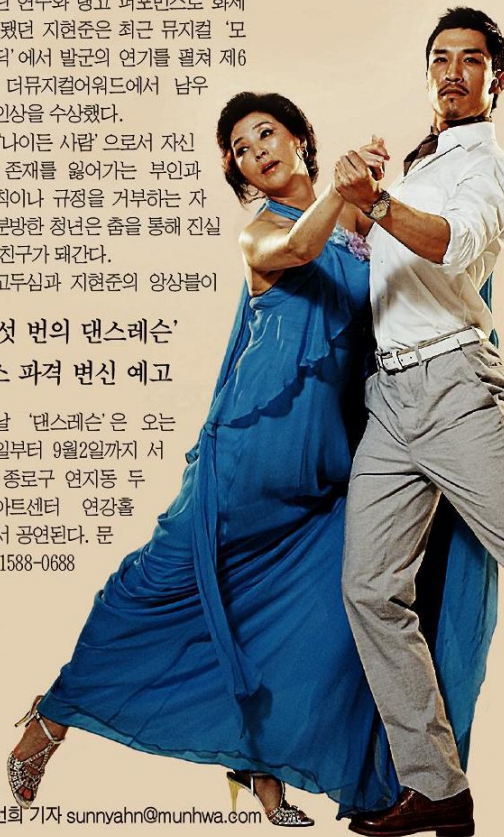
올린 연주와 탱고 퍼포먼스로 화제가 됐던 지현준은 최근 뮤지컬 ‘모비딕’에서 발군의 연기를 펼쳐 제6회 더뮤지컬어워드에서 남우신인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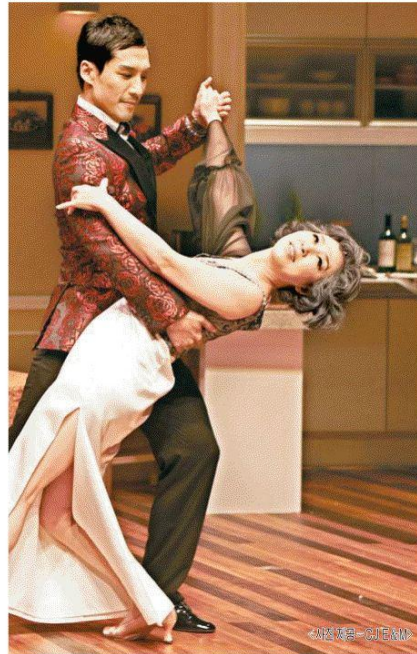
‘나이든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는 부인과 규칙이나 규정을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청년은 춤을 통해 진실한 친구가 돼간다.

고두심과 지현준의 앙상블이

빛날 ‘댄스레슨’은 오는 24일부터 9월2일까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공연된다. 문의 1588-0688

안선희 기자 sunnyahn@munhwa.com





40년 연기인생 고두심 제대로 춤바람 났다

연극 '댄스레슨'에서 노부인역

과묵한 게이 댄스 강사와 일흔둘의 미망인이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 연극 '여섯주 동안 여섯번의 댄스레슨' (김달중 연출·이하 댄스레슨)을 보고 나면 춤을 통해서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댄스레슨'은 2001년 미국에서 초연된 리처드 알파에리의 작품. 12개 언어로 20개국에서 공연된 비결은 바로 여섯 갈래의 춤을 드라마 속에 완벽하게 녹여낸 극적인 연금술에 있었다.

아내로,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온 중년 여인 릴리는 일탈을 꿈꾸며 방문교습 댄스강사 마이클로부터 6주 동안 6가지 춤을 배운다. 스윙부터 탱고, 비엔나 왈츠, 폭스트롯, 차차차, 컨템포러리 댄스까지. 물론 거짓말로 자신을 소개하며 만난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티격태격. 게이임을 숨기고 아내가 있다고 한 남자, 남편이 곧 돌아올 거라고 속인 미망인은 매 레슨마다 상대방에게 날선 독설을 쏟아낸다.

하지만 만남이 반복될 때마다 둘 사이를 가로막던 빗장은 하나씩 사라진다. 갈등은 봉합되고, 거짓말을 털어놓은 뒤의 격렬한 싸움은 위로로 치환된다. 그렇게 결코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둘은 최고의 친구가 된다. 아픈 릴리를 위해 수프를 준비해 오는 마이클의 세심함과, 무뎌져 보이면서도 그에게만 마음을 여는 릴리는 '상실과 결핍'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이다. 새로운 춤을 배울 때마다 하나씩 비밀이 벗겨지는 극의 구성은 흥미로웠다.

5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오른 릴리 역 고두심의 춤실력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했다. 매 춤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며 예순한 살의 노배우는 무대 위를 깃털처럼 가볍게 누볐다. 비극적 과거를 회상할 때 쏟아내는 감정의 깊이도 40년 연기생활을 한 대배우다웠다. 상대역 지현준의 능글맞은 연기도 잘 어울렸다. 무대 위 울해의 커피를 뽑아야 한다면 이들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늙으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 투명인간이 되어 버린다고"라는 노인 릴리의 투정에 "내게 특별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라고 마이클은 위로한다. 이러한 대사들 덕분에 화려한 춤의 잔상보다 두 사람이 나누는 교감의 깊이로 기억될 연극이었다. 극이 닫힐 때, 황혼처럼 짙게 드리워진 달빛 아래로 둘의 탱고가 미끄러졌다. 객석에선 잔잔한 박수가 이어졌다. 무척이나 근사한 엔딩이었다.

9월 2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1588-0688 김슬기 기자



연극 '댄스 레슨'의 배우 지현준이 연미복을 입고 공연장인 서울 종로구 두산아트센터에 섰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뮤지컬 '모비딕'의 지현준, '댄스 레슨'서 춤 선생 役 도전

배우 지현준(35)은 지난해 방송사의 연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욕을 많이 먹었다. 그는 연출가 이윤택이 이끄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9년차 단원이었다. 입단 1년이 안 돼 이윤택의 분신(分身)이라 할 햄릿 역까지 맡았다. 그런 그가 TV 방송에서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중간에 떨어졌다. 연극계 일부에서는 '뭣 하는 짓이냐'고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두산아트센터에서 만난 지현준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며 대중에게 나를 열어 보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 무렵 어머니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 정신 차리고 하신 말씀이 '아들아, 방송 한번 해봐라'였다. 장남이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걸 보고 싶으셨던 것 같다. 전혀 모르는 관객을 위해 9년간 컴컴한 지하 연습실에서 굴렀는데, 어머니를 위해 그거 한번 못 나가라 싶었다." 그는 "중도 탈락했지만, 연극적인 호흡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스승 이윤택은 1일 "다른 매체에 도전하면서 밑바닥부터 시작한 지현준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유를 만났다"고도 했다. "여동생이 한쪽 뇌가 없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오디션 중 밝혔다. 일부터 감췄던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가뒀던 틀이 깨진 느낌이였다."

그의 도전은 방송 이후 뮤지컬로 이

어졌다. 연기와 연주를 해야 하는 액터 뮤지션 뮤지컬 '모비딕'에서 작살잡이 퀴퀘그 역을 맡아 바이올린 활을 휘두르며 무대를 휘어잡았다.

다시 연극으로 돌아온 그가 춤 선생으로 변신했다. 지난달 24일 개막한 연극 '댄스 레슨'에서 은퇴한 70대 여교사(고두심)에게 6주간 6가지 춤을 가르친다. 선 굵고 남성적인 외모의 그가 게이로 나와 남녀 간 사랑 대신 인간적인 교감으로 작품을 채운다. 지현준은 고두심에게 "아가야"라는 대사를 천연덕스럽게 던지며 도식적으로 빠져드는

연극 9년차 이윤택 제자가 TV오디션에 떨어지니 눈총 하지만 선생님은 "자랑스럽다"



CJE&M 제공
'댄스 레슨'에서 스윙댄스를 추는 고두심(왼쪽)과 지현준.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는 "'댄스 레슨'을 연습하면서 어머니를 자주 떠올렸다"고 했다. 아버지는 사업을 벌일 때마다 망했다. 피아노 학원을 하며 집안을 지탱한 것은 어머니였다. 아들이 '바이올린 켜는 낭만적이고 지성적인 외교관'이 되길 원했던 어머니는 없는 살림을 털어 초등학교 학생인 지현준을 바이올린·주산·웅변·한자·피아노 학원에 보냈다. 모친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대학 졸업 후 인턴으로 들어간 방송사 PD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PC방에서 시간을 '죽이는' 날이 계속됐다. 그러다 불현듯 군복무 때 들었던 이윤택의 명성이 떠올랐다. 무작정 그를 찾아가 단원이 됐다. 2003년이였다.

그 후 9년은 연극한다고 돌아다니는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게 어머니의 일상이 됐다. 얼마 전 밤늦게 연습을 마치고 귀가한 그의 눈에 마루에서 TV를 켜놓고 잠든 모친이 들어왔다. 희미한 브라운관 불빛이 옆으로 누운 어머니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르고 쓸쓸한 모친의 'S라인'을 보며 "저것이 가족을 위해 인생을 바친 내 어머니의 하이라이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현준은 "어머니가 방송통신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면서 "인생의 절정이 아직 남아 있고, 여전히 꿈을 간직한 어머니 세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신정선 기자 violet@chosun.com

▲연극 '댄스 레슨' 9월 2일까지, 두산아트센터, 1588-0688

공연리뷰

춤 추는 고두심 멋진데, 연기하는 고두심은 ...

연극 '댄스 레슨'



관록의 고두심(앞)과 신예 지현준이 함께한 연극 '댄스레슨'에는 다이내믹한 커플 댄스와 섬세한 심리 묘사가 공존한다. [사진 CJ E&M]

춤 바람 난 고두심. 구미가 당길 만한 홍보 문구다. 그래서 보러 갔다. 고두심(61)씨의 춤 실력은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연극 '댄스 레슨'은 60대 노부인과 30대 남자 춤 선생이 등장하는, 2인극이다. 남자가 춤 가르치러 여자 집에 매주 한번씩 찾아간다.

이상한 상상 하지 마시길. 불륜, 뭐 이런 거 없다. 남자가 동성애자다.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얘기다. 아찔한 사랑보다 애뜻한 우정이 작품의 골격이다.

둘은 확연히 다르다. 여자가 휴양지 해변의 근사한 아파트에서 사는 상류층인 데 반해 남자는 하루 벌여먹기 바쁘다.

특하면 거짓말을 하고, 싸구려 말을 거침없이 날리는 남자를 우아한 여자가 곱게 볼 리 없다. 반면 남자는 괜히 허세부리는 듯한 여자가 눈꼴사나다. 계급도, 취향도 다른 둘이 빠져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싸우다 정 드는 법. 둘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 둘 풀어놓으며 끈끈함을 이어간다. 막판엔 코끝 찡한 대목도 있다.

커플 댄스는 종합선물세트다. 스윙으로 출발해 끈적한 탱고로 분위기를 잡은 뒤 낭만적인 왈츠를 거쳐 의상스런 차차차로 방점을 찍는다.

소개되는 춤은 모두 여섯 가지. 몸을 움직인다는 게, 흥이 있다는 게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돌아보게 해준다. 춤 연습에 꽤 오랜 시간 투자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우선 흐름이 단조롭다.

연극은 총 7장으로 구성됐는데, 남자가 아파트로 찾아가고, 티격태격하고, 서로의 얘기를 주고 받고, 춤으로 마무리짓는, 엇비슷한 패턴의 연속이다. 더 고개를 갇혀버리게 하는 건 고씨의 연기다. 우리가 익히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존재감이 실종됐다. 그냥 '연기를 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줄 뿐, 극 중 인물로 빨려 들어갈 수 없는 채 곁돌았다. 새삼 영상 연기와 무대 연기가 얼마나 다른 영역인지 곱씹게 해주었다.

오히려 물 만난 듯 무대를 활보한 건, 고씨의 상대 배역인 신인 지현준씨였다. 능청스런 게이 연기와 미끈한 춤 솜씨로 중년 여성팬의 지지를 받았다. 엉덩이를 뒤로 쏙 뺀 때의 뒤태는 꽤 색시했다.

▶연극 '댄스레슨'=9월 2일까지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7만·5만원, 1588-0688.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 포커스 (08. 03일자)

Focus

2012년 08월 02일 목요일 A24면 종합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는 여자 힐링 댄스



독자들이 말하는 이 작품

"사람들은 늙으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 투명 인간이 되어 버린다고."

연극 '댄스레슨'은 '황혼의 여인'과 '소외된 남자'가 춤을 통해 서로의 자아를 발견하는 이야기다. 30년 교직 생활을 정년 퇴직한 여자(고두심)는 간헐한 성격의 댄스 강사(지현준)에게 개인 춤 교습을 받는다. 자존심이 강한 여자와 까칠한 남자는 처음엔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6주 동안 6번의 댄스 레슨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간다.

스윙, 탱고, 비엔나 왈츠, 포스트모던, 자자차, 컨템포러리 댄스는 각각의 단계에서 두 남녀가 쌓아놓은 마음의 벽을 하나 둘씩 허물어버린다. 경쾌한 스윙으로 몸을 풀고 나면 로맨틱한 탱고로 한층 가까워진다. 이들은 낭만적 분위기의 비엔나 왈츠로 호흡을 맞춰나가기다 부드럽고 귀족적인 포스트모던으로 공감의 폭을 넓힌다. 춤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차차차로 삶의 리듬에 강한 비트를 주고 난 뒤, 자유로운 분위기의 컨템포러리 댄스로 소통을 완성해나간다.

고두심은 6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연극 '댄스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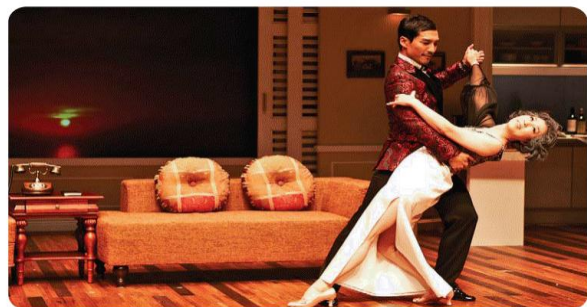
만큼 유연성 있는 몸놀림과 빠른 스텝으로 무대를 장악한다. 지현준 역시 고두심을 안정적으로 리드하며 춤의 품격을 살린다.

6주 동안의 레슨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털어놓으면서 두 남녀는 더욱 친밀해진다.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를 뛰어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가로지르면서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석양이 바닷물을 붉게 물들듯 아름답게 펼쳐진다.

댄스 강사는 여자에게 "난 당신이 보여요. 당신은 바로 여기,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함께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철저하게 혼자 버려졌다는 외로움이 느껴지거나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고독감이 밀려 들어올 때, 이 연극은 당신을 치유해줄 것이다.

9월2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글 최영동 영상 이철준 기자

QR코드를 찍으면 연극 '댄스레슨' 하이라이트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세대를 뛰어넘어 엄마와 여자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엄마를 이해해고픈, 혹은 엄마와 친해지고픈 딸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allur**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이해해주는 서로를 만나게 된 두 사람,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한 저 역시 마음이 치유되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토리군

유머와 따뜻한 속에서 나와 엄마,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소통에 대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봐도 참 좋을 연극인 듯 합니다. maur**

고두심 선생님의 배역은 나중에 나도 꼭 도전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배우 김선경

엄마를 보어드리러 갔다가 저까지 폭 빠졌습니다! 엄마도 분명 나 같은 시절이 있었고, 엄마도 꿈이 있었던 여자라는 것을 알게해주는 소중한 시간! crit**

지현준씨 완전 멋져요! 춤추는 모습도 멋지지만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엄마는 고두심 보고 난 지현준 보고! 완전 강추! astri**

선생님(고두심)의 연기는 역시 명불허전이다. 남자배우(지현준)분의 연기도 최고더라. 친구들과 또 보러오겠다. 가수 김동원(신화)

드라마 '내일이 오면'을 오랜 시간 함께했는데, 무대에서 연인(고두심)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줄 몰랐다. 배우 이경진

고두심의 차차차 “춤 빙자한 인생이야기”

연극 ‘댄스레슨’ 여주인공 말아

‘춤추는 고두심’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올해로 연기 인생 40년을 맞은 배우 고두심(61·사진)씨가 연극 <댄스레슨>(연출 김달중)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 그는 이 작품에서 스윙, 탱고, 비엔나 왈츠, 폴카, 차차차, 컨템퍼러리 댄스까지, 여섯가지에 이르는 춤을 선보인다. 관록 넘치는 연기, 맛깔스런 대사로 중년 관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지난 31일 밤, 갓 공연을 마친 그를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공연장의 분장실에서 만났다. 그는 대뜸 걱정스런 얼굴로 “오늘 공연 어떠했느냐?”고 물었다. “춤도 잘 추고 대사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자 “오늘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나간 것 같다”고 밝게 웃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한번 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아 혼났다”고 털어놓았다.

고씨는 2007년 연극 <친정엄마> 초연으로 수많은 모녀 관객과 중장년층을 공연장으로 이끌어 ‘엄마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그 뒤 5년만의 연극무대이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 바쁜 연기 생활에서도 연극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치유를 하는 기분도 있고요. 사실 연극무대는 텔레비전이나 영화 장르에서 맛볼 수 없는 현장감이 굉장히 두렵죠. 지을 수도 없고 편집도 안 되니까 이견 완전히 공포예요. 그런데 그 공포만큼이나 짜릿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댄스레슨>은 가부장적인 목사의 아내이자 30년간 교사로 평범하게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30대 청년 방문교습 댄스강사한테 6주 동안



생 얼마 안남은 70대 암환자
댄스 배우며 자아와 희망찾기
“춤의 생동감에 반해 덩석 잡아
60살 넘으니 공감 많이 되더라
연극무대 늘 공포...그게 매력”



여섯가지 댄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와 희망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200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초연 이후 2003년 브로드웨이 무대를 비롯해 12개 언어로 번역돼 20개국에서 공연됐다. 이 작품에서 고두심씨는 림프샘암으로 죽어가는 간단한 할머니 릴리 해리스으로 출연해 과묵한 성격의 ‘게이 청년’이자 댄스강사인 마이클 미네티 역의 지현준(34)씨와 호흡을 맞췄다.

“제 나이에 공감 많이 되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지는 삶은 별로 없잖아요. 환경이나 시대, 조건에 따라서 휘둘리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자아를 들여다보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는 “<댄스레슨>은 공연을 할수록 빠져들고, 제가 공감하는 것을 자꾸만 관객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처음에 이 작품을 선택했을 때는 춤에 매력을 느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춤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접촉한다는 것, 서로 몸이 닿는다는 것은 죽어 있는 어떤 생명체를 살려내는 것 같은 생동감이거든요. 이런 점에 반해 이 작품을 덩석

잡았어요. 그런데 인물을 분석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춤만이 아니라 춤을 빙자해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올해는 고씨가 1972년 문화방송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지 꼭 40년이다. 그를 한국의 며느리, 어머니 이미지로 각인시킨 <전원일기>를 비롯해 <꽃보다 아름다워>, <반짝반짝 빛나는>, <내일이 오면> 등 드라마 60여편과 <가족의 탄생>, <인어공주>, <엄마>, <굿모닝 프레지던트> 등 영화 10여편에 출연했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연기대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연기파 배우다. 40년 배우 생활에서 터득했던 그의 연기론이 궁금했다.

그는 “연기자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들이기에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뿐더러, 사람이 사람에게 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것에 앞서 다른 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제 자신에게 주입을 시킨답니다.” 공연은 9월2일까지. 1588-0688.

정성영 기자 chung@hani.co.kr

사진 씨제이엔엘 제공

“6개월 춤 맹연습...살이 쏙 빠져”

연극 ‘댄스레슨’ 열연 고두심
“데뷔 40년...무대 아직도 떨려”

중견배우 고두심(61)이 데뷔 40주년 올해 춤바람(?)이 났다.

지난달 24일 개막한 연극 ‘댄스레슨’에서 방문 댄스 강사에게 스윙·탱고·비엔나 왈츠·폭스트롯·차차차·컨템퍼러리 등 여섯 가지 춤을 배우며 자아를 찾아가는 70대 할머니 릴리 해리스를 연기한다.

지난주 공연이 끝난 직후 분장실에서 만난 그는 두 시간 동안 쉬 없이 춤을 춰 피곤했을 텐데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지난 일주일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얼마 전 대사가 틀린 적이 있어 오늘 더 긴장했는데, 다행히 잘 마친 것 같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연극 ‘친정엄마’ 이후 5년 만의 무대 복귀작인 이 작품에서 환갑의 나이라는 믿을 수 없는 춤 실력과 중년이 공감할 만한 연기를 펼쳐 공연마다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배우 인생 40년의 베테랑임에도 연기는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드라마와 달리 무대는 편집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공포감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해도 소용없어 매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관객의 응원이 큰 힘을 줍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면 발바닥이 불이 날 것처럼 뜨거워 한참 비비고 찬물에 담근다. 과정 역시 쉽지 않아 무려 6개월이나 춤 연습에 매달렸다.

“이 나이에 여섯 가지 춤을 모두 배우려다보니 다음 날이면 전날 배운 스텝이 헛갈리더라고요. 무엇보다 평소 왼쪽 무릎이 좋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죠. 다행히 춤을 추면 허리가 곧아지고 근육이 생겨서 힘들어도 잘 배웠다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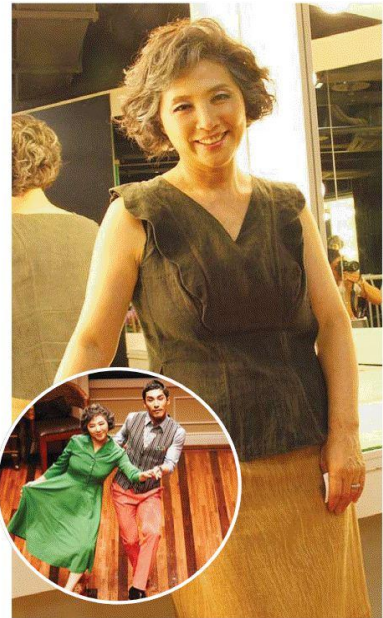
살이 쏙 빠져 허리도 잘록해졌다.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매년 ‘몸매’만 입던 엄마 역할

의 배우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죠. 입에 발린 말이라도 아직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좋답니다. 하하하.”

그래서인지 30대 게이 청년이자 방문 댄스 강사 마이클 미네티 역의 지현준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마치 친구 사이 같다. 고두심은 “현준씨는 재능이 많고 성실하다. 리드를 잘해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변신만을 보여주고 싶어 고른 작품은 아니다. “딸과 남편을 잃고 맘에 걸린 해리스처럼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자아를 찾으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내 나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았다”면서 중년 여성들에게 꼭 한 번 볼 것을 당부했다. 다음달 2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특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 동아일보 (08. 07일자)

東亞日報

2012년 08월 07일 화요일 A21면 문화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 레슨’
★★★★



연극 ‘여섯 주 동안 여섯 번의 댄스 레슨’은 춤을 통해 자아와 희망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올해 연기 인생 40년을 맞은 고두심(오른쪽)이 70대 과부 릴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CJ E&M 제공

“춤추는 이 순간 나는 살아있으니까, 여자로서 존재한다고.”

춤추는 공간에서 사람은 ‘춤추는 남자’와 ‘춤추는 여자’로만 구분된다. 그 남자가 부자인지 게이인지, 그 여자가 늙었는지 예쁜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물론 남녀 모두 외모가 출중하면 사교댄스장에서 춤 신청이 많이 들어오긴 한다). 한 사람을 둘러싼 온갖 조건들을 벗어던지고 그만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춤이다. 이 연극에서 72세의 할머니 릴리(고두심)가 외치는 위

의 말은 춤, 특히 남녀가 함께 추는 커플 댄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목사의 아내이자 30년간 교사로 살아온 릴리는 30대의 방문교습 댄스강사 마이클(지현준)에게 6주 동안 스윙, 탱고, 비엔나 왈츠, 폭스트롯, 차차차, 컨템퍼러리 댄스 등 여섯 가지 춤을 배운다. 릴리는 이미 춤들을 춤 줄 알지만, 그럼에도 춤 교습을 받는다. 함께 춤 파트너가 필요해서다.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손을 잡고 춤출 때 릴리는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혹은 할머니도 아닌

‘여자’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은 게이다. 사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 하지만 릴리 앞에선 그저 여자의 움직임을 리드하는 춤추는 남자일 뿐이다. 그렇기에 자신보다 마흔 살이나 많은 릴리에게 “아가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극은 릴리와 마이클이 함께 춤을 추면서 상처를 털어놓고 아픔을 치유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특정 춤과 두 사람의 사연을 교차해 보여주는 구성은 단조

롭지만 지루하지 않다. 두 사람의 춤도 제법 불만이다. 최근 종영된 MBC ‘댄싱 위드 더 스타’의 출연진이 보여준 화려한 춤사위를 기대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중년 이성이려면 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젊음이 보기에도 좋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가진 근원적 외로움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다만 ‘춤’ 하면 ‘바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이 연극을 계기로 제대로 ‘춤바람’이 나면 좋을 것 같다. 혼자 추는 춤 말고 남녀가 함께 추는 춤으로, 남

녀가 서로에게 의지하되 자신의 중심을 잡고 서있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이끌며 강요하지 않으며, 내 감정을 발산하되 상대방의 감정과 교감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춤이 탄생한다. 이것이 곧 인생이 아닐까. 직접 춤을 춰 보면 이 연극에서 구구절절 쏟아내는 사연들은 오히려 사족으로 느껴질지 모른다. 이지는 기자 smiley@donga.com

9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5만 원, 7만 원, 1588-0688

[방송]

>> SBS 뉴스 (07. 13일자)

문화·과학
CULTURE & SCIENCE

[문화로] 커뮤니티 댄스로 춤추는 '꽃중년'

8시 뉴스 방한 명절주 "김영환 석방 진지하게 검토"



<앵커>

무용계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댄스'라는 게 이미 활성화돼 있죠. 춤으로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는 활동인데, 특히 가족들 보느라 나를 버리고 살아왔던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로, 안서현 기자입니다.

팝업보기



>> SBS 한밤의 TV 연예 (07. 18일자)

SBS TV

30개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 ▶ TV 홈
- ▶ 프로그램 홈
- ▶ Welcome to 한밤
 - 한밤의 TV연예 소개
 - MC 및 리포터 소개
- ▶ 한밤을 다시 한 번
 - 한밤 다시보기
 - NeTV 명장면
 - 한밤 사진방
- ▶ 한밤과 함께
 - 한밤 시청자 의견
 - 제보! 스타미당
- ▶ 관련기사 보기
- ▶ 제작협찬 문의
- 드라마 프로그램
- 예능 프로그램
- 교양프로그램

NeTV명장면

▶ 파격변신 고두심 화보촬영!



>> MBC 뉴스 (07. 24일자)

뉴스	다시보기	핫코너	위클리	촬영상	20년뉴스	M-People	시민기자 &
----	------	-----	-----	-----	-------	----------	--------

다시보기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930뉴스

12시뉴스

4시뉴스

6시뉴스매거진

스포츠뉴스

뉴스24

뉴스특보

라디오뉴스

뉴스

전체

정치

통일외교

국제

경제

사회

문화/연예

스포츠

건강/의학

MBC Home > 다시보기 > 뉴스투데이

목록

인쇄

f

t

l

c

o

[연예투데이] 원빈, 노희경 드라마로 안방극장 컴백?/김장훈, 美 '오바마 봉사상' 수상 外

팝업보기

24(화) 6:56

MBC

고두심 파격 변신!

"국민 엄마 아닌 여자이고파"

사회 10대·금은방 털이범 3분 만에 붙잡혀

진주 22.5°

구름

비

눈

>> SBS 뉴스 (07. 25일자)

>> KBS 뉴스 (08. 05일자)